KiRi Weekly 2014.10.20

글로벌 이슈

미국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활용 현황

최 원 선임연구원

- 미국의 42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[1], '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'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, 이 가운데 대부분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를 인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됨.
  - 설문조사 대상 보험회사 가운데 95% 정도가 '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'고 응답하여, 2012년 조사 결과인 88% 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.
  - '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를 인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'는 응답은 71%로 높게 나타났음.
  - 그러나 언더라이팅(underwriting) 과정에서 또는 보험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를 인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사례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.

- 또한, 보다 완성도 높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데이터 활용 능력이 필요하며 '관련 IT 기술의 발전이 요구된다'는 응답 비율이 53%로 나타났음.
  -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요구되는 또 다른 과제로 '보험사기 인지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'는 응답(17%)이 많았음.
    - 보험사기를 계획한 사람들이 기존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인지할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보험사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오류가 커질 수 있음.
  - 2012년 조사에서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도입에 따른 투자수익률(ROI) 제고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36%로 나타났으나, 이번 조사에서는 8%에 그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확신이 커진 것으로 조사됨.
  - 설문조사 대상의 85% 정도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과 관련한 예산을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리겠다고 응답하였음.

---

1) Coalition Against Insurance Fraud(2014. 9), "The state of insurance fraud technology; A study of insurance use, strategies and plans for anti-fraud technology".

■ 보험사기 유형이 보다 다양해지고 그 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와 관련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.

- 과거에는 허위로 도난 또는 물적 피해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재물과 관련한 보험사기가 주를 이루었으나, 최근에는 허위로 상해 사고를 내거나 또는 불분명한 의료비 청구를 하는 등 신체와 관련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음.
- 보험금 청구 사건을 조작하는 것 이외에도 보험계약 시점 또는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보험료를 할인받고 이후에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보험사기 유형이 늘어나고 있음.
- 한편, 보험사기에 악용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수집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으며,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보험회사가 직면한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.

■ 최근 디지털 환경 하에서는 획일화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보다 전방위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유리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측면에서 빅데이터의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.

-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데이터는 보험회사의 내부 데이터(약 85%)였으며, 다음으로 보험업계 데이터(67%), 공공데이터(45%),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(38%), 타사 데이터(29%), 소셜미디어 데이터(14%), 그리고 커넥티드 단말기[2] 데이터(connected device)(5%) 순으로 나타남.
- 과거에는 내부 데이터에 의존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어 양질의 내부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기 인지가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데이터의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다양한 데이터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음.
- 분석 가능한 정보의 다양성이 커지고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빅데이터가 진보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, 시스템의 안정성과 활용되는 데이터의 보안에 주의해야 함.

■ 우리나라도 최근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으며, 보다 실효성이 높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.

- 2013년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규모가 4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,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도 5,190억 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.[3]

---

2) 무선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의미함.
3) 2014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와 금감원 보도자료를 참조함.

- 정부는 2014년 7월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으며, 해당 대책에는 보험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.
  - 보험업계 공동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언더라이팅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고, 보험사기자 정보를 집중하여 언더라인팅과 보험금 지급 과정 등에 참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.
- 보험사기 방지실태가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되는 데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기 방지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보험회사들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.
  -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됨.

(CAIF, 금감원 등)